人波에무친京城驛 會衆無慮二十萬

지극히엄숙한참배자의행동에 됴문왓든외국인들도혀를둘러

靈轜永訣式場安着

夕刊繼續＝고월남리선생(故月南李先生)의발인행렬(發靷行列)이칠일오후두시경에 종로모퉁이를돌아남대문통을향하매민중의 사표이며 원로(元老)이며또아유일한친우(親友)이신선생이마조막가심을슬퍼하는만도(滿都)의사녀(士女)들은발인행렬이나마좀더뵈옵겟다는아름답고안탁가운생각으로압흘다투어경성역(京城驛)을위하하고행렬을조차걸음을거듭하야행렬이영결식장(永訣式場)에도착하엿슬때에는종로통과남대문통네거리와용산방면(龍山方面)과 서대문(西大門)방면에서온 군중을합하야 무려이십만명에 갓가운 참배자가쇄도하야 경성역전의 대광장(大廣場)은 사람의바다를 일우엇섯는데 이번장식이 이천삼백만 백의민족의 열렬한 적성(赤誠)에서울어나온 거륵한사회장인만큼 연도의 참배하는남녀의 행동도지극히 정중하고도 엄숙하야털끗만치도 소홀(疎忽)한긔색이 업섯슴으로 영결식장에 됴문을왓든 외국인들도 이에무한한감탄을하얏더라

凄凉한奏樂裡 悲壯한永訣式

선생의유음을축음긔로들려 가신선배를더욱추모케하여 外人弔客도遝至

발인행렬이 영결식장에 도착하자 즉시 령구(靈柩)를 봉안(奉安)하고 진영(眞影)을또한모신후 행렬을 정돈하기에 경호대(警護隊)의분주한활동이잇슨후동비시정각에 영결식을 거행하얏는데 위원장 윤치호(尹致昊)씨가 개식(開式)을선언한후 경성악대(京城樂隊)의 비의곡(悲意曲)주악(奏樂)이잇슨후 윤치호씨의 선생을추억하는오열(嗚咽)한식사(式辭)가잇슨후에 박승봉(朴勝鳳)씨의 략력보고(略歷報告)가잇고선생이재세(在世)하섯슬때에 취입(吹入)한『레코-드』의유훈(遺訓)을리갑성(李甲成)씨가축음긔(蓄音器)로울리매 그리지안허도 선생의영혼을 애달버하든 만장의됴객들은 더한층 애모(哀慕)하는마음을 심각(深刻)케하얏스며다음으로안재홍(安在鴻)씨의처절(悽切)비장(悲壯)한애도사(哀悼辭)랑독(朗讀)과 이종린(李鍾麟)씨의 장의위원회 됴문(弔文)랑독과 홍명희(洪命憙)씨의 됴뎐보고(弔電報告)가잇슨후중앙악우회(中央樂友會)원일동의 애도가(哀悼歌)가끗나자일동은일분간의명상(冥想)이잇섯고영결례가 끗나자근화(槿花)녀학교와 협성(協成)녀학교 배화(培花)녀학교, 반도녀자학원(半島女子學院)등의각녀학생들의영결례가잇슨후삼우회악대(三友會樂隊)의또한 주악이잇슨후에 동다섯시에폐회하얏는데식장에는사회각방면 각계급의 인사가모다참렬하엿고래빈(來賓)으로는시내에잇는서양사람과및일본실업가유지들이만히왓섯더라

七時半에 靈柩奉安

삼십여인이수행

영결식이끗난후는즉시경성역구내 림시빈소(臨時殯所)로이봉(移奉)하고 일반됴객과 기타수행원을 비롯하야 모혀든군중도 다각기헤어젓는데 령구는 동오후 일곱시반에특별차(特別車)로모시엇스며 장디(葬地)서천(舒川)에는 장의위원장과 가……

◇……종로통을통과하는령이……◇

라각단톄의 대표자 어십여인과 조선소년군 열사람과 기타시내각신문사특파원(特派員)등도합삼십여인이 남구를모시고동날시삼십분에출발하얏더라

舒川謹吊團

수동리로출발

월남(月南)선생께서 영원이 무심분에출발하얏더라

처실 충남서천군(舒川郡)의 각단톄에서는 마즈막가시는 선생을조상키위하야 지난칠일오후 네시경에 본사서천지국(舒川支局)원의 안내로 단원사백여명이 장디(葬地)인수동리(水東里)로출발하엿더라(서천지국뎐보)

餞送人員數百名 靈魄모신列車出發

오후열시반에경성역출발

월남리선생의 령백을모신 남행렬차가 출발할시각이 갓가워게되매 선생의 마조막떠나시는길을 권송코자 사회각방면의사람들은 또다시 경성역으로모혀들어 출발정각인 오후열시삼십분이 거의되엇슬때에는 견송객이수백명의 다수에달하야 갓득이나 복잡한 경성역의 『폼』은한층더복잡하얏섯는데 정각이되어 긔차가 움직이고자할때에 우렁차고 구슬픈소년군의 라팔성(喇叭聲)이잇서 견송자의 암루(暗淚)를 자아내는중에 령해를 모신긔차는남으로향하야출발하얏더라

金相昊君永眠

본적을밀양(密陽)에두고통영조일뎡(統營朝日町)에현주하든김상호(金尙昊)(二三)군은항상현사회제도를 극력부인하는한편에『아나키즘』(無政府主義)을 신봉하얏스며 일즉긔미(己未) 삼월운동이 일어나자 열다섯살의어린 몸으로 밀양보교 학생수백명을거느리고대이차××운동을일으키고는경성(京城)으로망명하여 동광중학교(東光中學校)에서사년동안을 배웟나는바 재학중에도선봉(先鋒)이되어 삼사차의『스토라잇키』(동맹휴학의별칭)까지밧고다시중국북경(北京)으로건너가 삼년동안 국제대학(國際大學)에적을두고한편으로해외동지들과 사괴이다가 로서아(露西亞)『모스코바』에가기로 작뎡하고 거년가을에 단연귀국하야모든준비를 마치고 본월중에떠나고저하든터이바 불행히도 요시음유행병(流行病)인염병(腸窒扶斯)에걸리어 반삭동안을신음하다가 지난삼십일일상오 오시반에 뎡량리(貞梁里) 격리병사(隔離病舍)에서이십삼세를일기로불귀의객이되어 동일 하오네시장대(將台)화장장(火葬場)에서 화장을하얏다는바 친족들의 애통함은 물론이오 그들을아는 벗들도 섭섭함을 마지안는다더라(통영)

關西體育會主催 全鮮男女庭球會

륙월오일륙일량일간 端午佳節을利用하야

서선에 유일무이한 톄육긔관인 평양관서톄육회(關西體育會)에서는 오는오월오륙칠의 삼일간 평양공설운동장에서데삼회전조선축구대회를 개최한다 함은긔보되엇거니와 계속하야 오는륙월오일에는 전조선 남자뎡구대회(男子庭球大會)동월륙일에는전조선녀자뎡구대회를개최할터인데 이날은 음력으로오월단오절이되어 미리부터의 성황을예긔하는바 강령과 규뎡등은추후하야발표하리라더라(평양)

日人五名檢束

원산경찰서고등계(元山警察署高等係)에서는 지난륙일아츰조선우선회사의금강환(錦江丸)승조원촌상감일(村上勘一)외일본인오명을 데포하야 목하엄중취조중이라는데 그들은 례삼위(靑年會)에가입하얏슴에어떤일본인으로부터바든일본노동동맹(日本勞働同盟)이란『팜푸렛트』의 공산주의선전삼지를가지고잇섯든까닭이라고(원산)

阿間一帶에 怪文書多數散布

면장을위시하야각관공서 당국자를구축하는문서

긔보＝명천군아간면장 최준구(明川郡阿間面長崔俊九)의비행은 일반이다아는바이어니와 그후면민의 분개는 날로놉하서 가자못 확대하야가던바 지난이십삼일아츰에는아간시장을비롯하야 면내각처에 면장, 학교당국자, 경찰관급 학교건축비사건에대한 관계자를 욕설한괴문서가 산포되엇슴으로 이글을본경……

熱狂的歡迎의 鎭海觀光團

예상보다늘어가는단원 團體個人合하야千名 本報釜山支局主催로

본보부산지국(本報釜山支局)에서 진해관광단(鎭海觀光團)을 모집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긔회도긔회이지만 적은 비로써 풍진세상을떠나 의미잇는하로밤을 노리를엇고저 일반은열광뎍으로 대환영을 하야 부인단데가삼백이고 녀자 청년회에서 백여인경남인쇄회사(慶南印刷會社)직공과 그가족들이 백명동래(東萊)귀포(龜浦)에서 백여명 지난오일 신청긔한에정리한것과 발서팔백여인의 단원이모집되어 대성황을 일우울터이며 금명간 예정인수에 초과될모양이더라(부산)

찰당국은 극비밀리에 범인을탐색중이라더라(길주)

突然檢束

山內靑年會幹部 검거의그물은 각처에파급돼

수일전에 청리공립보통학교(靑里公立普通學校)교원리중근(李熏根)씨가 상주서에구금되엇다함은 이미본보에 보도된바와갓거니와 그후동씨를 경주서로호송하는동시에 그의아우인 신녕공립보통학교교원(新寧公普校敎員)으로잇는 리만근(李萬根)(二三)씨도검속이되엇스며현재산내청년회간부(山內靑年會幹部)로잇는유봉조(兪鳳祚)(二三)씨와편수갑(片壽甲)(二三)량씨의 가택수색을하는동시에경주경찰서에인치하야 엄중한 취됴를하는중이라는데 내용은 아즉절대비밀에부친다더라(경주)

每日新聞誤報로 民立大學支部는

응징하려고준비

긔보＝조선민립대학긔성회평양지부(民立大學期成會平壤支部)에서는 지난삼일에 평양매일신문에 ……민립대학긔성회평양지부간부한명이 긔부금(寄附金)을 횡령하고평양역두에서 도망하엿다는 긔사를 게재하엿는바 이에대하야 홍성설(洪性卨)씨와 평양지부이원등이 공모하고평양……하엿다는 ……를 무리히 모욕하엿다는 리유로이를응징하기위하야사월팔일오후 여덟시에 평양긔독교청년회관으로모히는자듯을평양민립대학긔성회지부로부터공문으로각단데에발송하엿다더라

紛糾解決 義明校

학교측양보로

두보＝평남평원군순안의명학교(平南平原郡順安義明學校)에서는 바금그학교를졸업한 김유순(金柔順)이라는 녀학생과일본동양대학(日本東洋大學)에 재학중인 윤달성(尹達成)두사람의추한관계로 윤달성에게는 매월오십원식 주던학비를 거절하고 김유순에게는 이주일동안의덩학처분을한까닭으로그처치가 부당하다는 교회측의극력반대로 분규가발생된사실은 그동안 학교당국에서도 이문데에대하야 진상을 됴사하는 일방으로 문데의주인공인 윤달성을 불르논동 한참동안은 매우굉긔가진장되엇섯는데 윤달성이가 얼마전에귀국하얏슴으로직접본인을 대면하야 그사실을 됴사하며 또는외부의 물의(物議)를참작한결과 전긔두사람사이에 련애관계가잇다는증거가분명치못하야 다소학교측의양보로 원만히해결되고말엇다더라

漁船顚覆 損害八百圓

지난이일 동해안포항항(東海岸浦項港)에정박하엿든어선(漁船)은동일오후한시경에 폭풍우(暴風雨)를 무릅쓰고 영일군형산강환호동(迎日郡兄山江環湖洞)에들어가고저동군내포면두호동(同郡內浦面斗湖洞)에서서편으로 약일리반(約一哩半)을해상으로 왓슬때에 모진파도에 전복된것을마침지나든긔선충청환(汽船忠淸丸)이발견하고 구조하야 포항으로 왓는바손해는약팔백원(約八百圓)가량이라더라(대구)

『購買組合으로 打擊은不免』

稅金不納同盟의口實

=일본인상업가들의심술이라도=

긔보＝경성부에서는 남부주민이라면 외아들가티 모든뎜에잇서서 알드리도 돌보아주는형편이엇섯는데 작금에이르러서는 그들이영업세 불납동맹이라는것을 조직하야 장차부당국에 진정코저하는중이라함은긔보한바이데 이제그들이 경성부는하여곰 삼백이십여만원이라는부채를 질머지도록 만흔혜택을입고서도 오히려 그러한래도를취하게된 원인을들으면 벌서오래전부터 데신국(遞信局)과 식산은행(殖産銀行)기타텰도국(鐵道局)등 단데에서 구매조합(購買組合)또는소비부(消費部)라는것을조직하야 시내일뎡한 상뎜으로부터 여러가지상품을 보통상뎜에서보다 월할내지이할가량의 렴가로 매입하야 만흔상뎜으로 하여곰 대단한곤경에빠지게하는것에 감정이 상하야 최근에이르러서는 그와가튼구매조합, 소비부에서는또한 충뎡도를 넘어서서 시내의일반상뎜은 물론이요 지뎡상뎜에까지 거래를 하지안코 무슨물건이던지직접으로 생산자(生産者)로부터 구입하야 분배하게되니 시내상업계의 타격은 또한층 입게되엇슴으로 긔보한바와가티 일본인의 상업가들은 전긔의구매조합등도 일종영업의 성질을띄엇스니 그들에게 과세(課稅)케하여달라고 진정코저하는동시에 당국자가이에 응치안는경우에는 자긔들도 영업세를납부치안켓다는뜻이랍더다

『購買組合의組織은 營業이아니다』

결아서과세할성질이아니다 (高橋稅務課長談)

별항문데에대하야고교세무과장을차젓든바 아직까지직접으로도 그러한 진정을 접하지는안햇지만 설혹그러한 문데가뎜차커저서 그들이문데를 일으킨다하드라도 구매조합 또는소비부라는 것은 결코 영업뎍이아니고공동생활상의 리익을 엇고저한조직이겟슴으로 그것에 세금을부과할성질이못된다고말하더라

吉林督軍署와締約 幾百日耕을租得

耕作志願者大大的募集 비용일반은독군서가구조 在住同胞의一福音

생활궁경에서 해매게되는 백의(白衣)의 대중은 삶의마즈막길을차저 빈듯이 간도로 몰려 그들의지도 또는편리를 도모하여주는하등의 긔관이업서 도로에서방황주저하는은 물론이요 산수가다른고풍속에서두는그들은의외에다처는 압박과사정으로 뜻하지안흔운명에 거듭얼키어 비명의횡사지변을 당할도 비일비재인것은 우리의눈으로 흔히 보든사실이오 그외에 간도가조타는뜬풍설만밋고 왓다가 생활의방도를 찾지못하야 헤매이게 되는오늘날에잇서서 간도돈화현성내(敦化縣城內)에잇는 당디유지 김뎡보(金定輔)김하평(金河平)의 주도한 알선으로 길림독군서(吉林督軍署)와교섭하야 긔백일경을 조득(租得)하기로조건계약(契約)을체결하고경작인들을 모집한다는데 토디와 농구를 업서농작을경영치못하는 동시에 소작인의일대생활을 ……로모집한다는데 ……으로 오기를환영한다는바 어케그주의(注意)사항을 간단히 긔록하건대 다음과갓다더라(간도)

◇注意事項

一、耕作地位置는敦化縣城南際平山前平野

二、資本主는吉林督軍署로함

三、飮料水와居住上位置가敦化全境에第一

四、農軍一人에對하야稻田大約一日耕式耕作케함

五、農軍一人에對하야小米中大斗一石과食鹽二十斤과黃豆一斗를無代無報로支給함

六、生活費不足額은幾何던지無制限으로借貸充用케함

七、農牛는租子로借與使用케함

八、開墾工費와其他一切는資本主가擔任함

九、家屋은無貸로居住케함

十、開墾工事에對하야多數勞動者使用

十一、右에關한一切費用은無報酬로周施함

十二、志願者는敎化城內中央十字街濟華病院이나吉敎旅館으로問議할일 以上

殺人姦夫逮捕

연백경찰서에서

긔보＝지난삼월륙일하오한시경에 연백군봉리면송신리(鳳栗里面松新里)황만복(黃萬福)(二四)이라는자는 동리 권상덕(全尙德)와간통하고 조성녀(趙姓女)와비밀히간통하야 권긔간부간부두명이공모하고 부인 권상덕의목을매어 참살하야 동면문수봉이라는 산골속에무더두엇든사실이발각되어 간부인 ……는 데포되고 황만복은 ……으로도망하엿든바 지난……오열시경에 연백(延白)……원에게데포되어 불원간……로호송될터이라더라

少女強姦未遂

충주

충주군(忠州郡)읍내김영조라는사람의집에서 심부름하는 약종이세된승분이란 소녀는 …… 지난일일 오후아홉시경 그집사람들이 례배보러가서 나실에들어가 혼자 …… 가서 수욕을채이라함은 의외의일에 놀내어 소리를지름으로 그집주인 김……장에또차가서구원하엿는그길로 종적을 감추엇다는데 방금그의부모들은고소……야라고(충주)

兩溺死屍發見

평북강계

평북강계군(平北江界郡)서문강(西門江)을왕래하든배가 폭풍으로 인하야 작년십일월하순경에 어부인이사망한중삼인의시체는 발견치못하얏다는것은긔보한바 지난삼십일일에동군곡하면서창(曲河面西倉)압독로강(禿魯江)가에서두시체를발견하야사망자의가족이 검사한바 동군공서면회룡동(公西面回龍洞) 강응수(姜應洙)의모친과동군강계면서부동(江界面西部洞)김병준의안해의시체로판명되엇다고(강계)

◇訂正 本報五日第二三五九號第二面七欄에 揭載된『臨溪驛耕한洪地主』라는題目下의記事中洪鍾爽이라는爽字만은瑞字의誤植이기玆에訂正함(소주)

◇사진설명＝(상)인산인해를이룬 다수히 이곳 남대문통 (중)행렬 소년군 (하)월광을가는 행렬

映畫小說 白衣人 【五十六】 李慶孫 作

리호는 두사람에게 술가락을 논——삭혓시만 동무에게는 불쾌이잇다 이야기를더 계속하고——다고하야서 그대로 일허서고……

엇다

꿀물을빼켜나온 두사람은 래왕또다시맛나기를언약하느라고 종로네거리에 잠시머믈럿다

바로엽헤는 이삼십명의 군중이모히어서서 상뎜 이마빼기에 달려잇는뎐동을치어다보기에무엇인가하얏더니 그곳에는라디오『가노치엇다『케——오——뗘——케!』하는소리가 딱(흥)열리듯

『세월아몰찰아 가지를딸어라』

이시작을고하더니 장안의수만흔 기생의한식이 다흘어진다』는 폭론을 가득찬네거리에 퍼진다

『동풍?란하군요 그것도』

동무는 그가린비우서서 두사람은 쓴우승을 흘렷다

『그럼 래일——』

『——네 래일……』

작별을하고서 몰아서라니까 건너편책사에 금글자 간판이 불에비치어 번쩍어리엇다

『칠십원식예어먹고 아니주면서 매일번장해가는구나……』

수자를 입원시켜노코 매일가졸라도 한푼아니주든책사이다 그돈칠십원남은것은 벌서 멋달을

『내그적게도보고 어저게도보앗네 ××극장 무대뒤역——아마매일 오나보데』

이동무는 자긔의하숙으로 놀러와서 한두번보젓이잇스니 얼굴을잘못보앗슬리는업다 리호는 무어라 대답하여야조흘지 깁갑하엿다

『배우는 무슨배우……』

『왜무대배우로 나섯나 활동사진이 낫질그래…… 자아또보세』

『엉』

『고맙습니다』하는 동무는 뎐화에대한 사례를남기고 수천스러히 나가버린다

리호는 그자리에 서잇기가붓그러워첫다

『지내다가 졸를덕습니다 또뵈옵시다』

머리안에는 ××극장 무대뒤를 그리느라고 정신업시 모자까지 버스면서 꼭둣한인사를 하엿나

『가세요? 이거보세요 잠간』

책사주인은 무슨일이잇는지 다정스럽히도 손짓을하며 불는다

리호는 어색한걸음에다가 천잔음을보히며 그압흐로 드갓다

『심은곳해 들일텐데요 요세 쓰는지알수가업다

리호는 어쩐지 둘러보고가십허서 그책사안으로들어섯다 분하기짝이업는몸에다가차푸렁수염을부친주인은 역시 상량하게 도사를올린다

『엇더케오십니까』

『네』조흥심니까 자미가——』

하고보니 말해보기도 실혀진다

그리자 누구인지 자긔집종종녀로뛰어올른듯이 부산하게 뛰어든다

돌아다보니 그것은 ××신문사의 운동부와뎐예부를 마터본다는긔자××이다

『여!』

『여! 웬일야』

『웅』

『나는 뎐화좀 걸랴고 여엇댓소 뎐화좀 빌려주시오 모시모시 아고와몽!』

그동무의 범석은 불난집어삿이엇다

『거긔장춘관요? ——행화좀 불러주시오』

『발근이 여긘하구면』

『웅? 웅—— 참자네누의동생 배우로 나스나?』

리호는 왼소련가 하엿다

『웅?』

『가만잇게—— 너냐? 여과는 명월관인데 네가곳나온때면나도 너희집으로지금 가겟다 나올테지? 곳에 이자식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럼그만두자』『명월관이무슨명월관이나왈칠스럽게』

동무는 뎐화를마치고 돌아선다

참 말아니닙니다』

주인은시갑을 쓰내더니 오원싸리한장을집어 내엇다

『이것으로엇더케 닥배용이라도……』『참미안합니다』

이놈이이러케 의외에 짓을하는것은 멈우도자긔가 불상히브힌탓이 아닌가하고 해석하지니 사실진뎡이 날만치 그자리를피하고만 십헛다

리호는 그것을 바더가지고나와서 바로극장편을향하야 걸엇다

자긔가 감사치못한 사하에누의의 정신은 그다지도흘러네린것을생각할때에 오죽 가슴한이쓰릴뿐으로 그의장래를 엇더케지도하리란것은 가리잡을 여유가업섯다

극장의 출입구를 넘어서무대뒤도를어섯다

흘깃본 무대에서는 무슨연극인지 남녀가편치에 안지어잇섯다 그계집아이가 누의동생 얼골이 아닌것만은 똑똑이보앗다

어둠컴컴한 무대뒤에는 한사람의 각본든 청년과무엇인지속다거리며 마치질하는 사나히가 잇섯다

리호는 마치질하는사나히에게가서 물으랴하니

『눈구 차지세요?』하고 오히려그편으로 부터 자긔의온뜻을 못는다

그리자 어데서인지 정애의음성과 비슷한 목소리가들려온다 그것은뒤화장실 안인들입』이라고외부친 문짝안에서 여럿이지거리는중에 석기인 한줄기이다